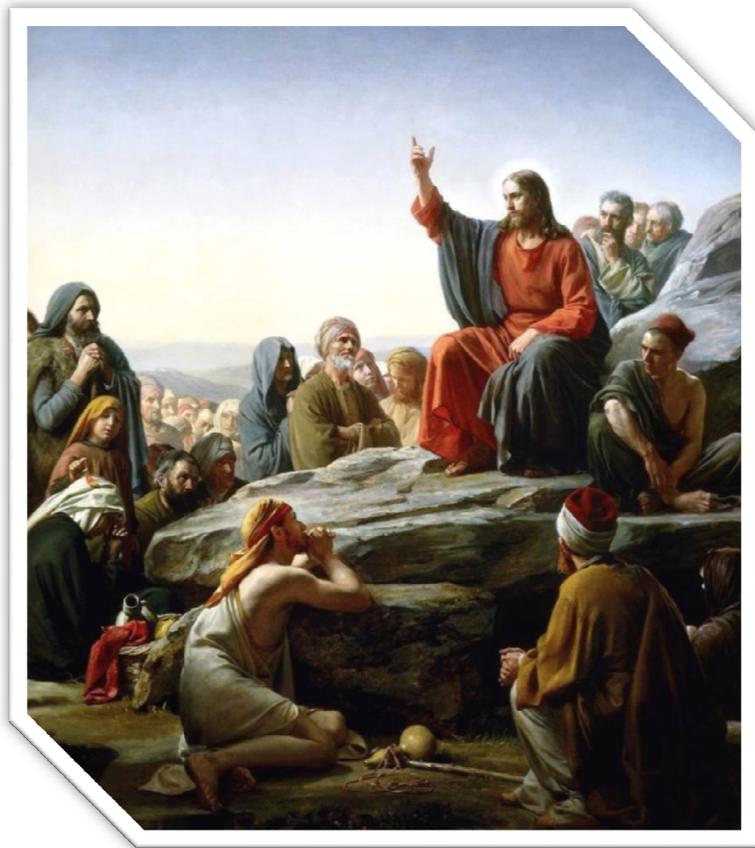


2015 7. 19 연중 제 16 주일

- 제 1 독서 : 예레미야 23,1-6 <나는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세워 주리라. >
- 제 2 독서 : 에 페 소 2,13-18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 복 음 : 마 르 코 6,30-34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앞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요즘 삶의 한 형태인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도 생각하여 볼 겨를이 없이,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 갑니다.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실상, 우리의 삶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한만큼 나는 얻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무한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유한한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것은 바로 하느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느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를 못하면 무엇을 채우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때문입니다. 오늘제 1 독서에서는 예레미야예언자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어느시대에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600 년전입니다. 다윗왕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대략 1000 년전에 나타나 이스라엘왕국을 가장 크게 번성시키지요. 그리고는 하느님의 집이 없는것을 생각하고는 하느님께 성전을 세우려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시지요. 그 왕권이 솔로몬에게 전해집니다. 솔로몬이 그 왕권을 받으면서 하느님께 드린 기도가 참 아름답지요. 명예보다도 주님의 지혜를 청하지요. 그런 솔로몬이 나중에는 여자에게 홀려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믿던 하느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궁전에 모셔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은 다윗왕족을 거부하는 자손들이 차지를 했고, 남쪽은 다윗의 자손들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왕이 죽고 300 년이 흐른후에 북쪽 왕국이 앗시리아에 의해 패망을 하게 되고, 100 년후에는 앗시리아왕국도 바빌론에 의하여 없어지게 됩니다. 그 시기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남쪽 유다 다윗의 자손왕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치를 하면 하느님의 생명을 받고 왕국을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왕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1 독서에서 예레미야예언자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양 떼를 홀어 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어떻게 죽느냐? 하면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바빌론 왕국에 접수되어서 바빌론 왕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참수당합니다. 그뿐만아니라 그 왕의 눈은 찔려서 장님이 되어 세상을 끌려다니다가 죽게 됩니다. 그 처참한 결과는 예레미야 예언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이 된것입니다. 그 예언은 지금 사제인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들이나 주교님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라는 하나의 경고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성직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또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제가 이런 말을 듣곤합니다. “신부님, 요즘 우리아이들이

부모의 얘기를 들습니까?” 물론 안듣죠? 요즘 우리의 아이들은 진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배운 아이들입니다. 그래도 50, 60, 70 대의 나이는 어느정도 흑과 백을 배우신 분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배우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옳고 그름이 자기가 위주입니다. 내 느낌이 좋고, 내 기분이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잔소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줄수가 있을까요? 바로 형제 자매님들이 그 선이 완벽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분명히 중간 지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흑과 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사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을 알아야 그들에게 흑과 백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의사 소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 할 경우에 그 책임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참혹 할 수도 있습니다. 제 2 독서에서 바오로사도께서는

**“형제 여러분,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얼마만큼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갔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십시오. 친구 사이는 어떻습니까? 서로 연락을 하고 가능한한 서로 만나서 친교를 나누지요? 과연 우리는 하느님과 친구처럼 자주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그런 느낌과 생각을 하는지요? 예수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하는지요? 우리는 과연 하느님께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요? 저의 강론도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낮을 때는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고, 속으로 왜사나? 왜 사나? 를 반복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저를 성찰해 볼 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가질수 없는 것을 계속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어둠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바로 순명에 있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할 때에야 비로서 힘듦과 괴로움과 우울증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신부로서 하느님께 모든것을, 내 모든것을 맡기고 낮을때 신기하게도 이세상의 그 어려움과 고통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사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계속 반복 되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생각으로 양보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다 결정하시도록 맡겼을때, 내가 오히려 자유스러워 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형제 자매님들도 시도를 하여 보십시오. 주세요! 주세요! 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항상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안에 들어옵니다. 복음 말씀 오늘 마르코 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과연 나는 내 이웃의

어려움에 안타까움과, 또 그들을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혹시 명품을 사고, 좋은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품질이 좋기 때문인지? 그것이야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남들에게 우월해 보이기 위한 것 이라면, 그것은 대죄 입니다. 내 이웃을 내 눈아래로 보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제 1 독서, 제 2 독서,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또 오늘 강론을 통하여 듣고 계신 말씀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 양심을 깨워주기 위해서 당신께 더 가까이 오도록 하시는 사랑의 말씀 이십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일상 생활을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장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기도

아버지,
파스카를 경축하는 이 주일에,
저희가 교회에 함께 모여,
말씀과 생명의 빵 안에 계시는 성자를 모시오니,
참된 예언자요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기쁨의 샘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제 1 독서

<나는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세워 주리라.>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23,1-6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 떼를 파멸시키고 흩어 버린 목자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양 떼를 흩어 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은 출산을 많이 하여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 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고 부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3(22),1-3 ㄱ.3 ㄴ.ㄷ-4.5.6(◎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2 독서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2,13-18

형제 여러분,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치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30-34

그때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